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편집인 이연택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3991~3 인쇄 (주)한우리SJM

2011년 (단기 4344년) 4월 30일 (토)

<http://dongguk.or.kr>

제222호

“내 꿈의 날개... 더욱 힘차게 비상”

본회 장학생 ‘감사의 글’ “후배들에게 전통 물려줘야죠”

후배들에게 훗날 보탬 되겠다.



등록금에 보탬이 되니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됐다 싶어서 가슴이 설렌다.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증서를 받는 순간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 앞에 계신 저 선배님들 처럼 나도 훗날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에 매진하여 나도 후배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선배가 돼서 모교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낙호 (통계학과 3)

‘제2의 고향’ 한국에 봉사



중국 하얼빈에서 한국으로 유학온 지 4년.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한 지는 이제 3년째 된다. 이번 장학금은 한국에 와서 처음 받아봤는데 정말 놀랍다. 중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몇 번이나 축하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나는 이번 장학금을 모두 부모님께 보내드리려고 한다. 난 지금 아주 행복하다.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동국은 내게 제2의 고향이 됐다. 앞으로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손영hang (정보통신공학 전공 3)

영원한 나의 이름표 ‘동국’



영원한 나의 이름표가 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주시는 장학금이라 그 의미가 더 특별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선배님들께서는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란 생각이 들었기에 그 분들을 본보기 삼아 내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혜빈 (영어통·번역 전공 3)



▲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명진관 앞에 함께 한 선·후배들.

사랑받는 연기자로 베풀며 살고파



지난 2년동안 성적우수 장학생이었는데, 정각원 추천으로 받은 장학금은 처음이라 더욱 마음 뿌듯하다. 지혜와 슬기로서 더욱 더 타의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장학금을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모두 기부했다. 학교 참사람 봉사활동을 통해서 방과 후에 처지가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만난 아이들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받는 배우로 늘 베풀면서 살고 싶다.

조하랑 (공연예술학부 3, 탤런트)

총동창회에 도움 될 터



주임교수님을 찾아뵙고 면담을 나눴는데, 더 노력해서 나중엔 꼭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도록 하라고 하시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총동창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다니! 정말 기쁘다. 졸업하기 전, 성적장학금 수혜자가 되어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

내게 좋은 기회를 주신 총동창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커나가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박민지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3)

꿈에 대한 열망 한층 깊어져



이번 장학금을 받은 것을 계기로 관광인의 꿈에 대한 열망이 한층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감사한 기회를 주신 학교와 동국장학회의 선배님들께 꼭 보답하리라는 책임 의식이 생겼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동창회 장학재단의 관계자 분들처럼 나도 인재를 양성하는 데 보탬이 되는 큰 사람이 되겠다.

김미숙 (경주캠퍼스 호텔컨벤션경영 4)

힘차게 도약하겠다.



지난 학기에 봉사활동 점수 미달로 성적우수 장학금에서 제외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 장학금을 받게돼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동국장학회 장학금은 민족의 소용돌이치는 역사 가운데서도 훌륭한 인재로 자리매김하신 선배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장학금이다. 그분들을 본받아 힘차게 도약하겠다.

내 꿈에 날개를 달아준 동국대학교! “사랑합니다.”

남아름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 4)

선배님들의 눈부신 면면 알게돼



나 또한 미래의 동국장학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이 되어 반드시 후배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학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시는 선배님들의 면면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선배님! 대학생활 중 아름다운 추억 한가지를 심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호 (경주캠퍼스 경영학과 4)

예 · 결산안 - 사업계획 등 통과

제73차 정기이사회 및 제30차 정기총회 성료



▲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3월 31일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렸다.

각종 회비 지난해 대비 57% 증가 진지하고 원활한 진행으로 동문 기대 부응

본회는 지난 3월31일 제73차 정기이사회 및 제3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0년도 결산보고와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행사는 오후 6시30분 엠베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모교 제2건학 운동인 'RE-START' 비전 설명회가 있는 다음 1부 제73차 정기이사회, 2부 제30차 정기총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이연택 의장이 “참석 임원 220명, 위임장을 송부한 임원이 168명으로 회칙 제17조에 의거, 적법한 성원 구성이 되었다”라는 성원 선언으로 회의가 속개되었다.

전영화 본회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 감사보고에서 이제곤 감사는 “2009 회계년도 감사 권고사항인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여 자산운영 상태가 일목요연하게 결산되어 있다”면서 “다만 임원회비 증대를 위해 집행부가 더

욱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안건 토의에서 제1호 의안인 2010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안은 이흥섭 (80/84회계,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동문이 발언권을 얻어 “회계처리가 복식부기를 채택해 투명해진데다 임원회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57% 신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울러 회무보고는 회의자료 가운데 사무총장께서 주요내용을 부연 설명한 만큼 큰 이의가 없다”고 동의를 제안했다. 이에 참석 임원들이 별다른 이의없이 제청, 삼청으로 화답함으로써 통과를 보았다.

제2호 의안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는 이연택 회장으로부터 중점사업으로 지부·지회 조직 활성화와 장학사업 확대, 홍보활동 강화, 재정 자립기반 확충과 모교 발전 적극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나서 임원들이 모

두 동의, 원안대로 일괄 의결되었다.

이사회 종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회원들은 “방금 전 이사회에서 심의된 의안으로 이의가 없다”면서 재청, 삼청으로 동의함으로써 모든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연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노력 만큼 꿈은 이루어 진다. 김희옥 총장께서 선언하신 'RE-START' 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동국인 모두 이에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고 말해 총회장을 가득매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이사회 및 총회에는 이연택 본회 회장과 모교 김희옥 총장을 비롯 본회 고문과 지도위원,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등 임원진들과 일반회원을 포함해 모두 350여명이 참석했다.

제2건학 운동 'RE-START' 소개

이날 이사회 직전에 있는 모교 제2건학 운동인 'RE-START' 비전 설명은 이상일 전략기획본부장이 나와 “창의적인 인재양성, 사회적 책무이행,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창출, 재정 건실화,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뛰어 2020년에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소개하였다.

이날 회의 종료후 만찬에서는 전순표, 선진규, 송석구, 원용선 고문과 조창현 상임부회장, 김형태·홍성숙 부부 동문이 건배 제의에 나서 만남의 기쁨과 동국발전의 염원을 합창했다.

민병덕 은행장 초청 포럼

“성공 덕목은 신뢰와 진실성”



▲ 국민은행장 민병덕 동문.

국민은행장 민병덕(74/81경영, 본회 부회장) 동문 초청 ‘동국포럼’이 ‘도전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지난 2월 17일 아침 장충동에 있는 엠베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이연택 본회 회장과 모교 김희옥 차기 총장, 재단이사 영담스님을 비롯 동문, 후배 재학생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민 은행장은 미리 준비해온 ‘시골 소년 은행장 되다’란 타이틀의 대형 VTR 영상자료를 단상에 띄워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 세심한 배려와 함께, 역경을 딛고 성공해 금융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한 본인의 경험담과 인생 역정을 시종 밝고 흡인력있는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이날 민 은행장은 평범한 은행원으로 출발해 국내 최대 국민은행의 수장에 오르는데 큰 자산으로 ‘신뢰’와 ‘진실성’을 꼽으며 “현대는 자기 PR시대이므로 수동적인 성격을 탈피, 타겟 공략을 위한 적극성과 고객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처음과 끝이 항상 같아야하며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진실성을 가지고 대하면 상대 역시 마음을 연다.”라고 말했다.

동국인칼럼

동국 '제2건학'으로 가는 길

김희옥 새 총장 취임을 계기로 모교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일단 반갑다. 기대를 건다.

그동안도 동국발전을 위한 장단기 '비전'과 '구상'과 '계획'은 많았지만 결과는 늘 아쉬웠던 점에 비추어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동국인 모두의 심정일 것이다.

참여와 협력이 열쇠

모교의 슬로건으로 다시 걸린 '제2건학' 성공의 열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동국인과 불교계 전체의 공감에서 우러난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있다. 그런 노력과 열정이 사회 일반에 연쇄반응을 촉발토록 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성과가 가시화 될 때 쯤에야 달라진 평판이 새로운 이미지로 굳어진다.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늘 제자리걸음, 결국은 후퇴다.

필자는 72년 모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후 중앙일보에 수습기자로 입사했다. 사회부장,편집국장대리,논설위원,사장실장,시사미디어대표등 직책을 맡아 2006년 퇴직할때까지 30여년 언론 종사 기간중 나름대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94년 중앙일보가 처음 시작한 대학평가다. 당시 사회부장으로 실무작업을 총괄 지휘하면서 대학의 시대적 역할과 발전 전략을 생각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런 배경과 인연으로 그동안 모

교에 나름의 의견을 보탬 기회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구색 갖추기로 끝나고는 했다.

다시 그런 과정의 되풀이가 되지 않게 하자면 이번 '제2건학' 프로젝트는 출범에 앞서 몇가지 전제의 확인과 인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

먼저 '제2건학'의 의미부터 분명히 새기자. 그럴듯한 수사로서의 구호라면 이제는 의미가 없다. 내용없는 구호로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성을 전제로 바른 의미를 공유하고 대학 구성원은 물론 동문 사회와 재단,종단까지 불교종립대학 동국대학과 직,간접으로 인연있는 모든 개인과 집단이 각자가 할 일을 찾아 결단하고 실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기득권의 재조정 필원

제2건학이 무슨 뜻인가. 과거의 잘못과의 절연이다. 기득권의 전면 재조정이다. 그동안 답습해오던 관행과 행태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제2건학'이란 말을 써서는 안된다. 지구촌 문명 대전환의 격동 가운데 대학이란 중심이라는 점에서 '제2건학' 자체는 문제의 중대성을 짚은 구호이나 과연 그 말이 요구하는 내용을 실행에 옮길 용기와 성의가 있을까. 구한말 동국의 전신 '명진학교' 간판을 걸던 선각의 비원과 충정을 인연있는 사부대중이라면 되새겨 먼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미래에 관한 궁극

의 비전이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왜 동국대학이 존재하는가. 과연 어떤 것이 대한민국 불교 조계종 종립대학 동국대학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인가.

꿈은 클수록 좋다

여기서는 그림이 클수록 좋다. 왜? 현실에서의 성취는 결국 꿈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동국대학은 '대학민국 3대사학' 위상 보다 '인류문명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아카데미'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황당하게 들리는가. 어린 소녀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거둔 성과를 1천6백년 역사의 한국불교가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이 과연 타당한가. 크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런 기개와 포부로 한국 대학의 문제점을 하나씩 앞장서 고쳐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자임해야한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생각과 태도 때문에 바로 '일류'가 된다. 필자가 몸담은 중앙일보에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언론사마다 너도나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부작용이 더 염려되는 '대학평가'에서도 언론의 자의적인 잣대에 맞추려 하기 보다 평가를 끌어간다는 발상으로 차원을 높이고 한발짝씩 앞서 나가는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불교대학 동국의 원초적 경쟁력 아닌가.

인류문명의 길잡이 자임을

시장만능 시대가 끝났다. 정부는 정부다워야 하고, 기업은 기업 다워

야하고 대학은 대학다워야 한다.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와 대학의 모델을 지구촌 인류문명에 제시해야할 사명이 동국에 있다고 하면 과대망상이라고 비웃을텐가.

꿈은 크게 그리더라도 실천에서는 일상의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왜? 모든 일의 주체인 사람은 너나 없이 변화를 싫어하고 이기적인 중생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코 혁명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작은 개선을 누적시켜 시간과 함께 결과로서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외에는 성공의 방법이 없다. 지속성,일관성이 그 전제다. 꿈이 작으면 흔들리고 성급해도 실패한다. 이를 아는 겸손하고 책임있는 리더라야만 일을 해낸다. 동문 김총장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원한다.

큰 꿈을 함께 갖고 일상의 작은 변화를 경쟁적으로 실천하는 사부대중의 정진하는 자세가 갖춰진다면 '제2건학'의 성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사부대중을 한마음으로 모이게 해야 한다. 소통과 개방 밖에는 답이 없다. 대중의 지혜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 학교도 재단도 종단도 외부에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백척간두에 진일보의 용맹심만이 우리를 살린다. 먼저 20만 동문의 참여와 소통으로 '제2건학'을 시작해보자. 동창회보는 바로 그 창구다.

■문 병 호

(전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

정기총회 · 골프대회 논의

상임위원회, 행사준비에 만전 다짐



▲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본회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다.

본회 2011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가 지난 3월 17일 오전 7시30분 이연택 총동창회장과 김동정, 원용선 상임고문을 비롯 각 직능별 부회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0 회계년도(2010.3.1-2010.12.31)의 회비수입

이 전년도(2009.3.1-2010.2.28) 대비, 57% 증가한 것을 비롯 모교 재학생 장학금 지급인원도 40명에서 22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어 제73차 정기이사회 겸 제30차 정기총회에 대한 안건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제5회 동국인 친선 골프대회는 총동창회와

모교가 공동으로 오는 5월 16일 금강CC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대회는 총동창회와 모교측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총동창회와 모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교 대외협력본부장인 정창근(73/77무역)동문을 본회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동국인 골프 65개팀 신청

개교 105주년기념 '제5회 동국인 친선골프대회'가 오는 5월16일 정오부터 경기 여주에 있는 금강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본회와 모교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골프대회는 지난 4월11일부터 4월29일까지 접수를 받아 모두 65개팀(260명)이 참가신청을 마쳤다.

이번 대회는 학교와 동창회가 함께하는 화합 축제로 모교 제2건학운동 확산 동참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학교, 경주캠퍼스, 동국의료원, 동문 등 모든 구성원이 자리를 함께 한다.

대회는 시니어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메달리스트, 우승, 준우승, 룡게스트 및

니어리스트, 홀인원상과 홀인원상을 시상하며, 행운상 경품 추첨도 갖게 된다.

5.16 골프 전반 협의

제5회 동국인 친선골프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대회 조직위원회 첫 회의가 송석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관계자와 조성구 모교 경영부총장과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4일 오전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가신청, 팀구성, 티업시간, 경기 방식 및 시상 종류 등 대회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총동창회 장학금 금년에 500명으로 늘린다

서울·경주캠퍼스별로 1학기 장학금 전달식 마쳐

총동창회 장학금이 금년으로 500명 시대를 열게 된다. 장학생 500명 목표는 후배들에게 학습의욕과 애교심을 고취 시키고 동문들에게는 모교의 대외적 대 학평가 순위를 긍정적인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데 함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 어주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1학기 분으로 서울 캠퍼스에 126명, 경주캠퍼스에 74명 등 모두 2백명의 재학생에게 총동창회 장 학금을 직접 전달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경찰행정학과 등의 각 학과와 사회 과학대학원 등의 대학원, 지역지부 및 친목별 등 단위동문회에서도 자체 장학 금을 52명 재학생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금명간 지급할 예정으로 있어 1학기 목 표치인 2백50명을 무난히 달성하게 되 었다.

서울캠퍼스 3월29일 중강당에서

서울캠퍼스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3월29일 오전11시 중강당에서 열 렸다.

서울캠퍼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본 회 이연택 회장과 상임부회장단, 각 학 과 및 대학원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했



▲ 경주캠퍼스 장학증서 수여식이 각 단과대별로 진행되었다.

으며, 학교 측에서는 조성구 경영부총장 과 박정국 학술부총장, 정창근 대외협력 본부장, 유국현 학사지원본부장, 윤재웅 전략홍보실장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연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도 동창회 장학생 목표를 500명으로 하 고 있어 그 규모면에서는 국내대학의 선두가 될 것이다”면서 “동국장학회의 장학생이 되었다는 긍지를 갖고 선배들 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21세기가 요구하는 글로벌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라며 격려했다.

박용재 장학담당 부회장의 사회로 진 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은 이연택 회장이

불교대학 소속 학생 5명에게 전달한 것 을 시작으로 문과대학(문병호 부회장) , 이과대학(이홍섭 부회장), 법과대학(고 용규 부회장), 사회과학대학(이재형 부 회장), 경영대학(김진억 부회장), 바이 오시스템대학(이 황 부회장), 공과대학 (이영균 ROTC회장), 사범대학(강창호 교육과회장), 영상미디어대학(양용호 문 화예술대학원 회장), 예술대학(이효정 부회장), 대학원(김오현 부회장), 정각 원(법타스님)소속 학생 순으로 이어졌 다.

전달식이 끝난 뒤 장학생과 본회 임 원들은 자리를 옮겨 명진관(석조관) 앞

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상록원 3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점심을 함께 하며 선.후배간에 정겨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 다.

이번 장학금 수여에 법명사 주지 선 일스님(73/77인철)은 개인지정 장학금 을 전달해왔다.

경주캠퍼스 4월13일 백상관에서

경주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4 월13일(수) 오전 11시 백상관 컨벤션홀 에서 있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본회에서 이연 택 회장을 비롯 법타스님, 박용재, 이상 직 상임부회장, 전영화 사무총장, 박병 훈 직할경주동창회장, 최덕수 경남동창 회 수석부회장, 공석돈 회계학과 동창회 장 등이 참석했으며, 학교측에서는 김영 종 경주캠퍼스 총장과 보직교수들을 비 롯한 교직원,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연택 회장은 동 국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인재 양성을 위 한 장학 사업에 크게 공헌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 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동국장학회 예·결산안 처리

금년도 장학생 5백명 증원 의결



▲ (재)동국장학회 이사회 광경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2011년도 제1차 이사회가 이연택 이사장을 비롯 김동정, 전순표, 원용선, 한우삼, 서영준, 김진문, 나경미 이사와 김진억, 이홍섭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2일 오전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으로는 2010년도 결산 보고와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 선임 건이 상정되었다.

2010년도 결산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장학사업으로는 기본재산이 2008년 기준 6억3천4백67만여원이던 것이 10억원으로 증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학사업은 1학기 108명, 2학기 125명 등 총 223명의 후배 재학생에게 1백만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으며, 교수연구비로 1억원(25명), 고시반 학습지원비 3천7백50만원(125명) 등 모두 383명의 교수 및 재학생에게 3억7천5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어 상정된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는 1,2학기 장학금 지급 목표를 5백명으로 정하고 1인당 장학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백만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장학회 임기만료 이사 후임 선임

4명 유임, 이두철 동문은 신임 이사로



▲ 이두철 이사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이연택)는 2011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어 4월2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후임 선임안을 상정, 이두철(89/91지

학, 변호사) 전순표(53/57농학, 세스코 회장) 홍파스님(63/67불교,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등은 중임을 의결했다.

5월 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연택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자동 유임되었다.

지난 4월7일 오전 앰버서더호텔 2층 VIP룸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3명중 이연택 이사장을 비롯 김동정, 원용선, 이무웅, 서영준, 송석환, 나경미 이사 등 7명의 이사와 이홍섭 감사가 참석하였다.

한우삼 동문 장학기금 5천만원

지난 연말에도 2천만원 보내와



원을 보내왔다.

본회 상임부회장이며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인 한우삼(63/69농학)동문이 지난 3월10일 장학기금 5천만

지난 연말에도 장학기금 2천만원을 쾌척한 바 있는 한 동문은 앞으로 3천만원을 더 보태 모두 1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한 동문은 현재 자동차부품 등의 전문제조 메이커인 태양금속공업(주) 회장으로 있다.

이두철 회장 또 3천만원 기탁

4년간 1억2천만원 출연 밝혀

삼창기업 회장인 이두철(89/91사회개발대학원)동문이 지난 2월11일 본회에 장학기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이 동문은 지난해 1월에 3천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 현재까지 6천만원의 장학금을 보내왔다. 4년간 매년 3천만원씩 모두 1

억2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한 이 동문은 본회 상임부회장과 사회개발대학원 명예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이 동문은 원자력사업, 플랜트사업, 설비사업과 해외사업 등 국내 및 해외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정진태·전영화 동문 각 1천만원



정진태 (00/02행원) 부회장 1,000만원



故 김범수 홍상 (63/67불교,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등은 중임을 의결했다.



정목스님 (80/85선학) 부회장 200만원



류수택 (60/67경영) 부회장 100만원



선일스님 (73/77인철) 상임이사 100만원

정진태(00/02행원) 동문이 1천만원을 지난 3월 23일 행정대학원 특정목적 기금으로 기탁했으며, 본회 사무총장 전영화(65/69경영) 동문은 지난 4월 21일 장학기금 200만원을 추가로 보내와 총 1천만원을 달성했다.

또 정목스님(80/86선학)과 고 김범수대위(78/02경영)의 부친 김영갑씨가 2백만원을, 류수택(68/69경영) 부회장과 선일스님(73/77인철)이 각각 1백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았다.

■ 최규연 조달청 청장

“시험은 통과 의례... 가치관과 비전 정립이 중요”

전문 금융통으로 30년 고위 공직생활



- 재무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자문관
-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겸 대변인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3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조달청장에 임명돼 18일 취임한 최규연(78/81행정) 동문.

크림색 꽃 목련이 화려하게 만개한 4월 아침,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그를 만났다.

희고 정갈한 와이셔츠 차림으로 결재서류를 보고 있던 그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일어나 맞아주면서 벗어놜던 자켓을 찾아 입는다. 그의 첫인상은 뭐랄까, 화사한 타이에 조용히 웃는 모습이 단아한 ‘선비’와 마주 앉은 느낌이랄까. 충남 대전에 소재한 본청에서 잠시 올라와 일정이 빡빡할 수 밖에 없는 그의 스케줄에 맞추려 서둘러 질문을 퍼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든 시종 여유로운 웃음을 띤 채 차분한 어투로 ‘준비된’ 답변을 하는 데 막힘이 없다.

확고한 자기 관리는 기본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구직난과 더불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추세를 들어, 첫 질문으로 한참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격려의 한 말씀 부탁한다고 하자 “열심히 하면 된다”란 간단명료한 답이 나오고 “그러나 단기에 승부를 걸 일은 아니다”라고 못 박는 최규연 동문.

“경쟁은 치열하되 시험은 단지 통과 의례일 뿐,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비전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오늘날까지 고위 엘리트로 ‘뽕뽕’ 존재할 수 있었던 무기가 있다면 그런

확고한 자기관리와 삶의 철학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을까.

대학 4학년이던 1980년 24회 행정고시에 합격,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공직에 입문한 최규연 동문. 취임 한 달여를 막 넘긴 최근 그의 행보는 몹시 바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을 구매·공급하는 동시에 각종 공사계약을 집행 처리하고 주요 원자재의 비축사업도 맡고있는 조달청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다 그 규모만 해도 1년에 약 10조원. 철강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 성수기에 하필이면 고철의 주요 공급처였던 일본이 대지진의 여파로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다 물가안정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처리할 난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있으며 활짝 웃는다. 그는 어떤 일이든 한 번 방향이 서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인터뷰 내내 부드러운 웃음과 함께 “내가 샤이(Shy)해서...”를 연발, 고위 공직자로 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흔히 갖고 있을 법한 권위 의식이랄까, 규격화랄까, 그런 상식과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부수는 묘한 따뜻함, 인간적인 소박함이 물씬 풍겨져 왔는데--.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해외 바이어를 연결한다라는 모토로 조달청이 개최한 ‘2011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와 관련, 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TV 홍보물에도 직접 출연해 소위 CF스타(?)로 얼굴을 알리기까지 했으니 ‘일처리가 꼼꼼하고 깐깐하다’란 평은 업무에 빈틈이 없는 그의

짓대들이 상투적으로 느껴진다”란 답이 건너오는데....

고향 친구들과 돈독한 정나눔

“집에서 10Km가 넘는 초등학교를 걸어 다니던 가난한 그 시절엔 농사 지어 먹고 산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때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내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인생에 큰 자양이 되준 것 같아요.”

그는 사람을 좋아해 어릴적 같이 자란 고향친구들을 지금도 만나 돈독한 정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 친구들이 연락을 많이 해와요. 텔레비전에서 봤다고도 하고.”

본회 70·80 모임의 회장을 벌써 2년째 하고 있고, 본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모교에 향시 큰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산업발전, 자연친화로 공생해야

“앞으로 계획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임청장으로서의 포부랄까, 요즘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깊이있는 업무 파악을 위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또 숙고해야 할 부분도 많고, 의견수렴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표인 만큼 1천명이 넘는 조달청 직원들에게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최규연 동문. 조달 행정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21세기 전 인류의 화두는 ‘친환경과 녹색성장’임을 강조, 산업사회의 발전 역시 자연과의 친화를 통한 공생관계여야 한다는 지론을 펴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30년간 공직을 지켜온 그의 직업관을 물어봤다.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자란 생각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업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공무원 수칙입니다.”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조달문화 창달과 물가안정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최규연 동문. 파워풀한 그의 행보로 새롭게 변모하는 조달청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지난 221호 차 한잔을 나누며-산악인 이인정 동문〉중 ‘국립 산악박물관 설립이 꿈’을 ‘국립 등산학교 설립이 꿈’으로 바로잡습니다.

93년 ‘금융실명제법’ 법안 만든 핵심 인물
인생의 전환점 가져다준 모교에 큰 애정

▲ 지난 4월13일 개막해 3일간 열린 ‘2011 코리아 나라장터 Expo’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는 최규연 동문 (사진 중앙).

‘뚝심’으로 정평 난 완벽주의자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통으로 1990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과전, 96년 영국 버밍엄대학 경제학 석사, 99년 대통령비서실, 2004년 IBRD 자문관으로 위싱턴 과전근무까지 크고 작은 치적을 쌓았고, 지난 93년엔 국내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금융실명제법’의 시행방안을 만들어낸 핵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당시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해외출장을 간다 해놓고 모처 한 아파트에서 2주 가까이 집거해 만들었던 게 그 법안이었어요.” 그 후 20년의 풍파를 거치면서도 내용 대부분이 별 수정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고

완벽주의를 두고 한 말이 아닐지!

“세상의 잣대는 상투적일 뿐”

최 동문의 이력은 예사롭지가 않다. ‘강원도 산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 원주농업고등학교 졸업. 방송대 행정학과 졸업 후 모교에 편입.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사람’ 등등.... “한때 농사도 지으셨다고 하던데, 남보다 특별히 머리가 좋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노력의 결과일까요?” 오늘 그가 있는 자리의 광영(?)을 가져다 준 것은 과연 무엇일지 조심스럽게 묻자 우문에 현답인 듯 소리내 하하-- 웃는 최규연 동문. “나는 내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보직에 욕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고. 그렇다면 그는 초월자인가? “세상의

“소셜미디어 등 활용 홍보 강화”

본회 홍보위원회 구성 첫 회의



윤청광



이계홍



문병호



김택근



김은호



최진수



윤재웅



최중홍



최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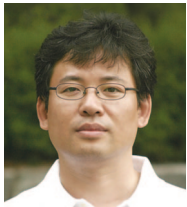
고기완



주승균



이재웅



유권준



남철우

본회 홍보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4월22일 오후 6시 총동창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소셜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양한 미디어 도구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동문 상호간의 소통과 동국발전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목표를 두고 출범한 홍보위원회는 문병호 홍보담당 상임 부회장을 중심으로 언론계 전·현직 종사자와 다양한 직종의 동문들을 중심으로 1차로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부회장은 “커뮤니케이션의 최근 추세는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동창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며,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보 발행주기를 최소한 격월간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월간으로 늘리되 발행부수나 인터넷 웹진 발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 총

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젊은 동문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총동창회 그룹 페이지를 개설하고, 트위터 아이디도 만들어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위원들을 필진으로

◇윤청광(58/62영문)

• 동국출판사 대표(현) • MBC라디오 ‘오발탄’ 집필 • 불교방송 ‘고승열전’ 집필 • (재)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장(현)

◇문병호(68/72정치)

• 사랑의 일기재단 이사장(현) • 중앙

◇신관호(69/73경제)

• 동국대 총동창회 사무국장(현) • 동대신문 편집국장 • 동국대 홍보실장-체육실장

◇김택근(55/79국문)

• 시인 • 경향신문 매거진-X 팀장 • 경향신문 문화부장-논설위원 •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집필 • 고려대-국민대 강사

◇김은호(75/82경행)

• 서울신문 상무이사(현) •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장

◇최진수(78/85연영)

• 커뮤니케이션 월(주) 대표이사(현)

◇윤재웅(81/85국문)

• 동국대 전략홍보실장(현) •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 동국대 동국미디어센터 주간

◇최중홍(81/85국문)

• 문화일보 편집부국장(현) • 불교TV PD • 중앙일보 편집부 기자

◇최성호(81/890법학)

• 동국대 법학과 교수(현) • 변호사

◇고기완(82/89사회)

• 한국경제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현) •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

◇주승균(82/92한의)

• 평강한의원 원장(현) • TBS교통방송-SBS서울방송 라디오 한방웰빙 진행 • 한방당뇨연구회 회장(현) • 동국대 한의대 겸임교수

◇이재웅(84/88수학)

• MBC 아나운서2부 부장(현) • MBC 아나운서 협회장(현) • MBC-TV ‘불만제로’ ‘기분 좋은 날’ 출연(현) •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 고려대-국민대 강사 • 즐거운 밥상 등 진행

◇유권준(88/94지교)

• 동국대 동국미디어센터(현) • 법보신문 기자 • 불교TV PD • 경향신문 경향닷컴 방송팀장

◇남철우(89/93농경)

• KBS 대외정책실(현) • KBS 홍보실

각계 전문분야 동문 대거 참여 다양한 미디어 시대 소통 역할

영입해 다양한 읽을거리와 동문소식을 늘려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홍보위원회는 매월 1회씩 정례모임을 갖기로 하고 고문에 윤청광(58/62영문), 위원장에 문병호 본회 홍보담당 부회장(68/72정치), 간사에 본회 사무국장 신관호(69/73경제)동문을 선출했다.

일보 사회부장-편집국장 대리-논설위원-시사미디어 대표

◇이계홍(65/69국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보위원(현)-동화일보 문화부 차장 • 문화일보 문화체육-특집-사회부장 • 서울신문 편집국장대우-논설위원 •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현)

ROTC ‘남산 추억의 길 걷기’ 행사



▲ 정기이사회를 마치고 나서 기념촬영.

ROTC 총동문회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가 원용선(59/63영문, (주)남양 이앤씨 회장) 명예총회장과 이영균(68/72토목) 회장, 성영석(67/71경영) 명예회장, 임형중(68/72식공) 상임부회장 등 모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4일 저녁 역삼동에 있는 포에버 리더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석 부회장 인준의 건(10기 박대신 69/73국문), ULTRA 112 장학위원회 위원장(9기 명예회장 성영석) 인준 등의 상정안건을 의결한뒤 중앙회 윤보덕(22기) 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사업결과 및 상반기 일정과 관련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오는 5월 28일로 예정된 ROTC 창설 50주년 기념 ‘남산 추억의 길 걷기대회’와 6월 4일로 예정된 연례행사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에 관한 공지사항도 함께 전달되었다.

112 ROTC 1기회 회장 피선



최동선(59/63경제) 동문이 연초에 있는 112 ROTC 1기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최 동문은 서한석유 대표 등을 지냈으며, 4.19혁명 동지회와 강서동문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동문활동에 참여해 왔다.

대한민국 ROTC 제2기 신임회장 취임



전진표(64/68임학)동문이 지난 4월 7일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ROTC 제2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전 동문은 산림청 남부지방 산림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국제조합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경영전문대학원 동창회’로 명칭 변경

2011년도 경영대학원 정기총회(회장=조동순81/83)가 지난 3월 24일 저녁 63빌딩 3층 시더룸에서 유석천 모교 경영전문대학원장과 역대 동창회장을 지낸 김완기(73/75), 조 규(75/77), 이형집(83/85), 이광세(86/88), 하만장(90/92), 김진문(/93) 동문 등을 비롯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동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

라 제20대 동창회장으로 최종운(83/85, 우리종합건설(주)회장)동문을 추대하고 취임식을 갖는 한편,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동창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회비 인하 및 총회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통과시켰다.

북미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

북미주 총동창회(회장=김상목, 66/70통계)의 2011년도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가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에 걸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JJ호텔과 코요테힐 골프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캐나다의 토론토와 미국 워싱턴, 뉴욕, LA, 아리조나 등지의 배시영(58/63경제), 임경호(58/64상학), 강만근(59/61법학), 차경훈(57/65경제), 이근영(63/67통계) 동문을 비롯 미주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8일 JJ호텔에서 가진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19일과 20일 코요테힐 골프클럽과 Long beach sky links go에서 열린 골프 토너먼트와 만찬으로 이어져 시종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모임에서 참석 동문들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데 대한 회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동문애를 다지는 한편, 고국의 모교 발전과 총동창회와의 교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의과대학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의과대학동창회는 지난 4월 16일 저녁 경주교육문화회관 1층 장미홀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대의원 총회를 가졌다.

2004년 결성된 의과대동창회의 이번 총회에는 1,2대 전임회장을 지낸 김광호(86/93)동문과 3,4대 채정욱(86/92, 3,4대)동문을 비롯 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회원간 친목과 신뢰를 다지는 한편, 제5대 신임회장에 장호석(86/92, 울산 아름다운울들병원 대표원장)동문을 추대하였다.

신임 장호석 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의과대학동창회의 기금 조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타 대학 의과대학들과 겨루어 손색이 없도록 강한 결집력과 내실을 다져 명실상부한 동문회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1992년 1기 졸업생을 배출한 후 20주년을 맞게 되는 의과대동창회는 ‘홈 커밍 데이’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동문회 조직 활성화 다짐

인천시지부 (회장=최종협 54/58경제,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 회장)는 지난 3월 29일(화) 인천 라마다호텔 한식부에서 금년도 2번째 임원회를 갖고 지부 활성화 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모임에는 정해룡(78/82경영, 인천경찰청 차장), 이성현(인천경찰청 정보과장), 최성환(부평경찰서장), 안중익(77/81경영,삼산경찰서장), 이환섭(71/75경영,전 중부경찰서장) 동문을 비롯 강부일(63/67법학,전 인천시의회 의장), 가용현(64/67상학,전 교육위원회 의장), 이주삼(59/63정치,전 시의원)동문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가운데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용인동문회 경마장 1일 체험

용인동문회(회장=우태주, 66/70경영, 국회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 임시 총회가 지난 4월16일 오후6시 조창현(64/68경영, 예비역 육군소장) 동문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통통숫불갈비집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지난 1월 용인서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재영(74/81경영)동문 환영회를 겸해 진행돼 축하와 덕담, 민요가락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용인동문회는 또 4월23일 오후에는 노환영(61/65영문, 서울마주협회 이사)동문 초청으로 박만갑 임종래 장준영 김성수 동문 등 20여명이 서울 경마장에서 경마를 즐긴뒤 임시 모임을 갖고 담소를 나누며 우정을 과시했다.

수요산악회 시산제

수요산악회(회장=김수광, 61/65철학) 시산제가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20일(수) 오전 11시 시내 청계산에서 있었다.

이날 회원들은 이수봉 중턱에서 준비해온 제수용품을 차려놓고 금년 1년간 무사산행과 회원들의 건강,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총무는 이경석(67/71도시공학)동문이 맡고 있다.

레슬링부 부활 등 발전방안 모색

레슬링동문회(회장=김익중, 64/66경제, 레슬링 국제심판) 임원회가 지난 4월8일 오후 6시 본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려 레슬링동문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재승(65/72경영, 캐피월드 회장), 장호성(65/69임학, 용인대 교수) 부회장 등 2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모교 레슬링부가 창단 이래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 많은 금메달을 따는 등 학교의 홍보와 위상을 드높이고 국익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회고하고 “모교에 레슬링부가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후원기금 모금과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결의한뒤 환담으로 선후배간의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다.

회비는 생각날 때... 바로 지금 내시면 좋습니다

- 동문님께서 십시일반으로 정성껏 내주시는 동창회비는
-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수학술연구 지원 사업
- 동문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동창회보의 발행과 발송 사업
- 동창회 조직 활성화 사업
- 모교 각종 지원사업과 회원 경조사 등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 동문님의 정성을 보내주십시오.

- 일반회원 년 회비 : 2만원

- 임원 분담금
 - 고문 : 1백만원 이상 ■ 부회장 : 1백만원 ■ 지도위원 : 3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 이사 : 10만원

- 납부방법
 - 송금계좌 : 외환은행 150-22-01536-0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후배사랑 ‘장학기금’도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장학기금 : 국민은행 501601-01-141914 (예금주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각종 문의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02-733-3993, 736-498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민주주의 혁명 최선두에 ‘동국대’가 있었다

2천여 본교생 경무대로… 동국의 영원한 자부심

- 아, 어찌 잊으랴, 4.19!!

올해로 4.19 혁명 51주년을 맞는다. 당시 독재정권에 대해 분연히 쫓아갔던 우리의 대 선배, 동료, 그리고 형제들. 붉은 피로 민주와 정의를 부르짖던 귀한 청년들. 독재의 무력 앞에 꽃잎처럼 스러져간 4.19의 주역은 바로 우리 ‘동국대학교’였다. -

4.19혁명 그날의 신문 보도들

學海는 海溢! 怒號는 岩壁에서 咆哮!

11시 30분경 약 2천명의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협잡과 부정선거를 규탄한다”고 말하면서 을지로를 통과하였다. 같은 시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 약 1천명이 흰색 가운을 입은 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외치면서 국회의사당 앞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생 약 1천명이 종로를 거쳐 을지로 입구를 거쳐 행진하면서 ‘시민들이여 정의를 찾아 쫓아와라’고 외쳤으며 그 뒤에 이어 동성중고등학교 학생 5백명이 “민주주의를 사수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의사당을 거쳐갔는데 뒤늦게 온 사범대학과 의과대학 그리고 동국대학교 동성중고등학교 학생들 약5천명은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였다.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 또는 통과했던 학생데모대는 광화문을 거쳐 중앙청에 이르러 경무대로 향하였고 다른 데모대는 서대문 이기붕씨 집 앞에 이르렀다.

하오 0시 5분경 학생데모대의 선발인 동국대학생들이 중앙청 후문인 통의동 파출소 앞에 이르자 대기하였던 경찰대



가 일제히 최루탄을 발사했다. 10여발의 공포와 13발의 최루탄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잠시 혼란을 일으켰으며 날아드는 공포에 학생1명 (홍익대학교 학생이라고 함) 이 복부에 중상을 입고 학생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대학병원으로 운반되었다.

“경무대쪽으로, 대법원으로, 이기붕씨 집으로, 내무부 앞으로 11시 50분 동국대학생 1천여명이 선두에 서고 그 뒤에 동성고교 서울대학 성균관 대학생 등 만여명이 뒤따른 데모대의 주류는 경무대쪽으로 밀려갔다 (한국일보)”

“데모대를 살인하자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동국대학을 선두로 한 사범대학 동성중학생들이 중앙청 후문 앞에 이르러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조선일보 (1960. 4. 19)

이제야 햇빛을 보게된 그 날의 ‘눈’

동국대생을 선두로 약 2천여명의 데모대는 노도와 같이 중앙청 앞을 지나 해무청 앞 로타리를 꺾어 일로 경무대

쪽으로 돌진해갔다. 그러나 이 데모대는 중앙청 서편쪽 문 앞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의 실수와 30여명의 무장 경찰관들이 발사하는 ‘공포’와 ‘연막탄’ 그리고 ‘최루탄’의 강력한 세례를 받자 일단 멈추어졌다. 이때 잠시 후퇴하는 듯 보이던 데모대는 여기서 즉각 투석

으로 대항하기 시작했다.

빗발처럼 날오는 돌맹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방어진은 약 30분도 못 견디고 드디어 무너져 후퇴를 하고 말았다. 극도로 흥분한 데모대들의 투석과 아우성에 쫓겨 달아나던 경찰관들은 국민대학 앞 노점상에서 다시 대열을 정돈하고 대기했다. 이때 데모대는 상수도 공사로 길가에 둔 길이 약 10미터 가량 되는 상수도용 철관을 굴리며 태극기와 ‘동국대학교’의 플래카드를 선두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질서정연하게 유유히

육박해갔다.

동아일보 (1960. 4. 26)

4.19혁명을 증언한다.

19일 의사당 앞을 거쳐간 데모대는 네갈래로 흩어졌다. 경무대쪽으로, 대법원으로, 이기붕씨 집으로, 내무부 앞으로 11시 50분 동국대학생 1천여명이 선두에 서고 그 뒤에 동성고교 서울대학 성균관 대학생 등 만여명이 뒤따른 데모대의 주류는 경무대쪽으로 밀려갔다. 해무청과 통의동 파출소 앞에 펼쳐진 경찰 제1저지선에 막혀 이들은 땅바닥에 눌러앉아 약 1시간이나 구호를 외쳐댔다.

그런데 통의동 파출소에서 뛰어나온 한 경위는 눈 앞에서 서성대고 있던 데모대를 향해서 권총을 발사했다. 한 학생이 땅에 쓰러졌다.

선두를 달린 동국대학생들은 효자동 종점에 퍼놓은 제3바리케이드에 다가 붉은 플래카드를 걸쳐놓고 기세를 올렸다. 그새 중앙청에 뛰어들어서 문교부와 부흥부를 부셨던 풀마니와 시위학생들은 경복궁 담을 뛰어넘어 경무대 어귀로 쇄도했다. 때를 같이하여 1시 25분경 데모대는 4대의 소방차를 빼앗아 경무대 정문을 돌파하려고 나아갔다. 그러나 정문 앞 3,40미터 쯤 다가섰을 때 경비 경찰은 일제 발사를 감행했다.

데모대는 물러섰다. 그러나 동국대학의 플래카드를 지키고 있던 네명의 기수는 물러가지 않았다. 후퇴하는 소방차에 매달린 학생들이 총을 맞고 낙엽처럼 10여명이나 굴러 떨어져갔다.

한국일보 (1960. 5. 5)

4.19혁명 51주년 추모식

당시 주역들 동우탑 앞에서



▲ 분향하고 있는 4.19혁명동지회 회원들.

4.19혁명동지회(회장=윤성열)가 4.19 제51주년을 맞아 지난 4월19일 오전 11시 모교 동우탑앞에서 추모식을 갖고 그날의 의의를 되새겼다.

이날 추모식에는 4.19 당시 주역들인 회원 50여명과 박정국 학사부총장, 정각원장 법타스님, 유국현 학사지원본부장,

권기홍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모교 간부 및 재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 수유리 4.19묘지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주관 추도식에 참석한 뒤 노회두 동지의 묘소를 참배했다.

한편 4.19혁명유공자회(회장=박영식)는 4월18일 오전 동우탑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가졌다.

4.19 서울·경주 등산대회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4월 8일 서울 우이동 북한산과 경주 석장동 큰갯산에서 각각 열렸다.

금년으로 42회째를 맞은 서울캠퍼스는 이날 오전 9시30분 4천 여명이 국립 4.19 민주묘지 다목적 광장에 집결, 4.19 혁명 기념 추모식을 가진 뒤 곧바로 북한산을 오르는 등산대회로 이어졌다.

이날 등산대회는 4.19동지회 동문들과 동국산악회 동문 30여명도 함께 참가했

다.

올해로 31회째인 경주캠퍼스는 재학생, 교·직원, 동문 등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등산대회는 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했던 4.19 민주영령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의의가 있다.

서천동문회 노회두열사 추모식

서천동문회(회장=김기수 58/64법학)는 지난 4월19일(화)정오 서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노회두 열사 위령비’ 앞에서 노회두 동문을 기리는 51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노 동문은 1960년 4.19 혁명당시 모교 법학과 3학년으로 이승만 정권 타도를 외치며 쫓기하다 경무대(현 청와대)앞에서 총을 맞고 숨진 첫 희생자로 이곳 서천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김중배 열사 46주기 추모식

‘한일국교수립반대’ 때 희생

김중배 열사 제46주기 추모식이 63동지회(회장=장장순 58/65법학, 코아넷텔레콤 사장)주관으로 지난 4월14일(목) 오전 10시 모교 만해동산 동우탑 앞에서 회원 및 재학생 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김중배 동문은 지난 1965년 4월13일 충무로에서 있던 모교 학생들의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일국교 수립 반대 데모에 참가했다가 부상, 이를 뒤 4월15일 사망했다. 김 동문은 당시 농학과 3학년이었으며,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있던 한일국교 수립 반대 데모의 유일한 희생자이다.

미국교수
동문 6명

후배들의 유학 멘토역할 나선다



이승묵



이원재



이창배



장현석



조병준



강지현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해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문 6명이 편집자에게 메일을 보내와 여기 실는다. 이들은 앞으로도 동문 및 후배들과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간 소통을 위해 틈틈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한다.

--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해외 교수들은 사랑하는 후배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가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보냅니다. 후배들이여! 부디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보람차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하며 “도전하고 비약하는 大 동국인이 됩시다” --

• 이승묵(88/92) - 2008년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에서 형사사법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현재 Western Illinois University 조교수.

1990년대 후반은 IMF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형사사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아 국내·외 교수로 활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인 형사사법과 범죄학 분야를 공부하여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겠다는 당시 나의 바램은 성취하기에 너무나 큰 꿈이었으며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달러 당 기록적인 1,930원으로 환전하여 뉴욕에 있는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무모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 뉴욕에 계시는 지인들의 도움, 그리고 가족들의 뒷바라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내 꿈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갔습니다. 도전은 항상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꿈과 도전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줍니다.

• 이원재(92/98) - 2004년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에서 형사사법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Angelo State University 부교수.

유학시절 전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강의와 연구조교로 발령을 받았고 장학금도 받고 해서 학비로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학 3학년이 되어서야 유학 결심을 하고 준비하다보니 영어공부 부족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유학길에 오른 저의 영어 실력은 겨우 토플과 지알이 점수를 잘 받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 첫 일년 과정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국할 생각도 많이 했었고, 심지어 대학부설 정신상담소에서 심리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었습

니다. 하지만,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견디며 자신과의 싸움을 일년정도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뚫리며 말문이 열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준비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고생이었지요. “역사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란 말의 뜻을 뼈저리게 실감한 1년이었습니다.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모교에서 매년 모집하는 미국 복수학위·교환학생과정 등의 지원을 통해서 시간 낭비 없이 미국 내 학점 취득과 영어배양의 일거양득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이는 후에 미국에서의 대학원 과정에 충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 이창배(94/01) - 2008년 Sam Houston State University에서 형사사법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University of West Florida 조교수.

유학을 처음 생각한 것은 안정된 직업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내가 하고 싶

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유학을 결정하고 고시원에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유학준비학원을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결국은 그들과 같은 학교에서 석사공부를 했습니다. 유학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유학시절 내내 저를 믿고 도와준 가족들 덕분에 박사학위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넉넉치 못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유학하는 동안 대학으로부터 장학금과 조교 지원비를 받으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유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와 뜻이 있으면 분명 길은 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일을

끝내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분명 여러분이 원하는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력의 결실로 인해 얻은 학위는 평생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 장현석(94/01) - 2008년 Sam Houston State University에서 형사사법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Missouri Western State University 조교수.

졸업 1년을 남겨두고 취직 걱정, 장래 걱정 등으로 방황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 젊은 날의 고민이 저를 유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재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뭘 하고 싶고 뭘 잘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목표가 정해지면 묵묵히 정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과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저

는 목표를 위해 7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값진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조병준(95/02) - 2010년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범죄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Westfield State University 조교수.

2002년 가을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9년이 다 되어가네요. 유학생들 중 가장 힘든 것은 언어장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학연수나 학부과정으로 왔다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한번이라도 더 직접 전화해서 영어로 피자를 시켜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학연수의 경우, 그저 어학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토플 공부를 한다면 한국에서 영어학원을 다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위과정으로 왔다면 목표는 학위입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선 교수님들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국어로 강의를 듣고 모국어로 시험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A를 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영어도 준비한 만큼 들리고, 말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강지현(97/02) - 2009년 뉴욕 시립대 소속의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에서 형사사법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Macao University 조교수.

취업과 유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에는 저에게 무한한 선택권이 있었으므로, 아주 행복한 고민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진로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짧은 저의 경험으로는, 노력과 결과물의 상관관계가 매우 정직한 것이 공부이고 학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부 뿐만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매우 정직하게 엮여진다는 것 또한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노력의 가치는 아주 정직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 지난 4월 26일 이원재 교수가 그간의 연구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여 Angelo State University 총장상과 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추가로 전해왔다. <편집자 주>

2020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

제2건학 'RE-START' 프로젝트 발표



모교 김희옥 총장이 지난 3월 21일 모교 본관 중강당에서 제2의 건학운동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겠다는 'RE-START PROJECT'를 발표했다.

김 총장은 이번에 발표한 리스타트 프로젝트에서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정체성 확립 △학문의 융복합 및 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 △국가 성장동력을 선도하는 R&D

중심대학 △글로벌 수준의 경영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 등 5개 영역에서 총 67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또 새로운 동국대학교 슬로건으로 'MY PRIDE 동국대학교'를 선정 발표했다.

또 불교관련 대학원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동아시아 불교연합대학 등 특성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서울캠퍼스 혜화문 부지의

개발을 통해 국제 선센터를 건립, 건학이념의 사회적 확산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교관련 대학원은 중국, 일본, 미국의 대학들과 연계한 복수 학위취득제와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구조로 대학 학문구조를 개선, 소수 비인기학과가 개편과정에서 소외되고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모교는 이를 위해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학문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해 학문구조 종합개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옥 총장은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동국대는 지금 제2의 출발선에 서 있다. 이를 위해 동국가족 모두의 노력과 합심이 필요하다"고 하고 "2천만 불자와 함께 불교계, 재단, 교수, 학생, 동문이 모두 함께 애정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 2억원 제2건학 기금 전달



모교 설립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자승스님, 사진 중앙)이 지난 3월23일 모교 재단이사장 정련스님(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에게 모교 제2건학기금으로 2억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 2억원은 종비생 수행관인 백상원 건립 및 운영기금으로 사용된다. 백상원은 그간 총무원과 교육원이 20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1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학인스님들의 수행공간이자 기숙사이다.

청조 근정 훈장 받아



김희옥 총장이 지난 3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협법재판관 등으로 재임하면서 국법질서 확립과 헌법 수호 등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올해의 초의상' 수상



김상현(사학과) 문과대학장이 우리나라 다문화의 중흥조인 초의 선사의 다도정신을 기리는 초의문화제의 '올해의 초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4월 30일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열리는 제20회 초의문화제 기념식에서 한다.

전통조경학회 회장 선출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홍광표 교수가 지난 4월 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사)한국전통조경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2년 3월에서 2014년 2월까지.

한국지반공학회장 취임



장연수(건설환경공학)교수가 지난 3월 24일 개최된 한국지반공학회장 정기총회 및 봄 학술발표회에서 제14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월부터 2년간.

경주캠퍼스 VISION 2020 선포

'오고 싶은 대학, 자랑스런 대학' 다짐

경주캠퍼스는 지난 3월 30일 교내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김영종 경주 캠퍼스 총장을 비롯 교내외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적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오고 싶은 대학·자랑스런 대학'을 만들겠다는 VISION 2020 선포식을 가졌다.

김영종 총장은 이를 위한 3대 발전전략으로 특성화, 국제화, 융합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5대 혁신과제로 '교육역

량 강화' '연구 경쟁력 향상' '국제화 수준 제고' '재정·인프라 확충' '경영시스템 혁신'을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4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경주 캠퍼스는 2020년 국내 20위, 아시아 100위 대학을 목표로 불교 분야 세계 최고, 에너지 분야 국내 최고, 바이오 분야 영남권 최고 대학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안전사용 박람회 개최

약학대, 5월13일부터 킨텍스전시장서

약학대학이 오는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서울 KINTEX 전시 4홀 및 3층 회의실에서 "의약품!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자!"란 캐치프레이즈로 2011 의약품안전사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모교 약학대학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건전한 의약품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 노인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과 다양한 의약품안전교육 및 체험교육 제공·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현명한 의약소비자 양성, 의약품, 약국, 약사,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기회 제공·의약품관련 최신정보 및 정보정책 홍보의 장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시장 내 300부스를 예정으로 해서 개최되는 이번 대규모 박람회는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남녀노소 제약없이 누구나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ROTC 49기 임관 소위

제2건학 기금 1천만원

학생군사교육단(112 ROTC, 단장 김정연 대령) 출신 49기 임관 소위들이 사회 첫발을 내딛으며 제2건학 기금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임관 후 각 병과학교에서 4개월간 장교로서의 전문지식 교육을 받을 예정인 이들은 매월 10만원씩을 기부하기로 해, 여기서 조성되는 장학금이 약 1천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의 장학금은 지난해 48기생 선배들이 임관과 동시에 장학금을 기부했던 전통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미 선배들이 조성중인 'ULTRA 112 장학기금'에 보태져 모교 ROTC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외국어대학교 명예총장에 추대



전 부산일보 사장 김상훈(55/59국문)동문이 최근 경북외국어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추대됐다. 현재 민족사연구소 이사장, 퇴계학부산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신입회장에 선출



도서출판 범우사 대표로 있는 윤형두(55/63법학)동문이 지난 2월 22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대한출판문화협회 64차 정기총회에서 신입회장으로 선출됐다.

몽고식품그룹 창립 106주년 기념식



몽고식품그룹 회장 김만식(59/63경영)동문은 지난 4월 8일 저녁 마산 아리랑 관광호텔 1층 무궁화홀에서 그룹 창립을 축하하는 제10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오사카 총영사에 부임



김석기(85/89 행원, 본회 이사)동문이 지난 3월 7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부임했다. 서울 경찰청장을 지낸 김 동문은 국비유학시험에 합격, 일본경찰대학에 유학했으며, 1994년부터 3년간 오사카 총영사관에, 2000년부터 3년간 동경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바 있다.

흥희표 시비 제막식



내년 2월 32년간의 교단생활을 마치고 정년을 맞게 되는 목원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며 시인인 흥희표(65/69국문) 동문을 기리기 위한 시비 제막식이 지난 3월 11일 목원대 인문관 앞에서 열렸다.

산악인 최초 석탑훈장



대한산악연맹 및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인 이인정(65/72상학) 동문이 지난 3월 16일 그랜드 인터컨티호텔에서 산악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조선통신사 옛길 한·일 우정걷기’



한국체육진흥회 회장 선상규(65/72응생) 동문이 지난 4월 1일 한일 양국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체육진흥회와 일본위협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

광부와 동아일보사, 일본 아사히 신문, 교토통신이 후원하는 ‘제3차 조선통신사 옛길 한·일 우정 걷기’를 개최하였다.

‘민간조사제도’ 공청회



강영규(70/77경행,대한민간조사협회 총재) 동문이 오는 4월 11일 국회위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간조사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경기남부 주류도매협회장 취임



오정석(72/79농학, 새한상사 대표)동문이 지난 3월4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에서 있는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 총회에서 신입 회장에 취임했다.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연임



한국불자교수회장인 최용춘(73/78법학, 상지영서대 교수) 동문이 지난 2월 21일 대통령실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 위원으로 연임되었다. 임기는 1년.

아동학 박사학위 취득



‘똥딱이 아빠’로 잘 알려진 개그맨 김종석(76/83연영)동문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버지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아동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취임



김명통(77/81행정)동문이 지난 4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83년 체신부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주요 요직을 거쳤다.

(주)HMC 스포츠센터 개업



강재웅(83/91산공) 동문이 지난 4월 9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을 갖춘 새로운 면모의 (주)에이치엠씨 스포츠사업단을 개업, 개업식을 가졌다. 강 동문은 경남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 전시회

서양화가 이한우(83/84교원)동문이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화이트홀갤러리에서 ‘아름다운 우리 강산전’을 열고 있다.

‘통일의 그날’ 초등 음악교과서에



동물보호 운동가이자 작곡 및 환경운동가수로 활약 중인 엄철수(84/90독문)동문이 작곡한 동요 ‘통일의 그날’이 해법 천재교육에서 간행한 2011년도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교과서에 실렸다.

‘전국 만해백일장대회’ 열려



(사)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정우식(88/93철학, 종로생각 대표)동문이 지난 3월1일 오전 10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3.1민족자주독립선언 92주년 기념 제32회 전국만해백일장을 열었다.

경찰청장상 수상



김승범(00/08경행, 경위)동문이 지난 4월 13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제59기 경찰 간부후보생 졸업식에서 경찰청장상을 수상했다.

서울 동부경찰서에서 퇴직한 김두현 총경(59)의 장남으로 동생 김승환 경사와 함께 경찰가족이다.

한국여류화가협회전



한국여류화가협회 회장 박 순(64/68불교)동문이 지난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종로구 관훈동 인사아트센타에서 제39회 한국여류

화가협회전을 개최하였다.

‘선서화 특별초대전’



성각스님(97/99문화예술대학원,남해 망운사 주자)이 지난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3층에서 ‘성각스님 선서화 특별초대전-분타리카 피었네’를 열고 있다.

부산경남대표방송(KNN)의 문화예술기금 마련을 위한 이번 전시회에는 성각스님이 평소 관심을 갖고 정진해온 선서화 30여점이 전시되어 호평을 받았다.

‘大 고려화불’ 전시회



월제 해답스님(99/01불원,개태사 주지)이 지난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울산시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위대한 민족 문화유산의 재발견-大 고려화불 전시회’를 가졌다.

백련 사찰음식연구소 개원



이춘필(99/01불교대학원)동문이 지난 3월 4일 부천시 중동에서 승가에 전해 내려오던 사찰음식문화를 사회 속의 일반에게 전파하여 건강한 음식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백련사찰음식연구소’를 개원했다.

결 혼

▲신정철(60/67경영,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회장)= 3월19일 차녀 보라양 결혼

▲변화환(64/68영문, 신흥대학 부총장)= 4월9일 차녀 희진양 결혼

서울시 중·고 교장 6명 승진



김희영 교장



전치경 교장



민 해 교장



윤창식 교장



이덕기 교장



박춘구 교장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동문 6명이 지난 3월1일 교장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희영(70/77수학)=서울외고 교장
△전치경(71/75물리)=한광고 교장
△민 해(74/78국교)=해원여고 교장
△윤창식(74/79국문)=오산중 교장
△이덕기(76/83국교)=문창중 교장
△박춘구(78/84역교)=연서중 교장

■ 직장탐방 릴레이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 메카로 국민생활 향상 기여

정보·통계관련 부서 등 요직에서 동문 15명 맹활약



장영식 박사



도세록 박사



손창균 박사



송태민 박사



이상영 박사



신정훈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약칭 보사연)에 근무하는 동국대 동문은 200여 종사자 중 15명 안팎이다. 대부분 주요 직책을 맡고 있거나 핵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 또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점이 특색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중 KDI에 이어 4번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보사연은 일부 지원 부서를 제외한 연구직이 모두 석박사로 진영이 짜여져 있다. 이중 동국대 동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건복지정보통계실, 건강증진연구실 등 보사연의 중추 부서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장영식 박사(대학원)는 보건복지정보통계실장을

거쳐 통계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보건복지통계 분야의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공로로 지난해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도세록 박사(75 통계학과)와 소장파로서 장래가 기대되는 손창균 박사(85 통계학과) 역시 통계개발팀에서 장박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 연구역량을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정보통계실장을 최근까지 지내고 U-보건복지팀장으로 실무 현장에 복귀한 송태민박사(76 전자계산학과)도 보사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보통계 계통 연구의 기둥이다.

동국대 동문은 유독 정보와 통계 관련 연구 부서에 집중 배치돼있는데 이는 동국대학교 통계학과와 컴퓨터 공학과와 전통과 훌륭한 교수진의 가

르침이 반영된 결과로 비쳐진다.

이상영 박사(대학원)는 부원장직인 연구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건강증진연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연구하는 건강증진연구실을 지휘하고 있다. 신정훈 박사(대학원 법학과) 역시 이상영 박사와 함께 건강증진연구실에서 연구역량을 키우고 있다. 박종돈 감사(대학원)는 보사연의 살림을 총괄 지휘하는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의 김은중 동문(96 회계학과)과 같은 연구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는 김주영 여성동문(04 행정학과)은 연구기획과 관련한 탄탄한 실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 입학한 박효숙씨(국제협력홍보팀)는 현재 3학기 재학중으로 홍보분야의 재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계홍(65 국문과) 국제협력홍보팀 전문위원은 30수년동안 동아일보 문화일보에서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대우 등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보사연에 입사, 5년째 홍보업무를 맡고 있다.

민생 관련 통계를 생산·가공하고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여 그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담론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래복지국가로 가는 기본 방향이다. 그런 면에서 동국대 동문들의 역할과 사명감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보사연은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듯이 보건복지연구의 메카다. 국민 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부문의 정책연구와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워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연구,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제 등을 현실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다. 보사연은 서울 은평구 3호선 불광역 역세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계홍·본회 홍보위원>

▲김혁배(65/69응생, 전 동국대 부장)= 4월9일 3녀 혜영양 결혼

▲김문재(96/98행원, NAM&NAM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4월17일 장남 형준군 결혼

▲백대운(70/74전자, 신한테크 대표)= 4월9일 장남 현웅군 결혼

▲정사균(95/96사개원, 태창기업(주) 사장)= 4월23일 장녀 아라양 결혼

▲백재승(73/77통계)= 4월30일 차녀 경민양 결혼

▲서상열(96/99행원, 대통령 경호처 부

장)= 5월21일 장녀 진아양 결혼



부 고

사극의 대가 김재형 동문 별세



‘여인천하’ ‘용의 눈물’ 등으로 유명한 사극 연출의 대가 김재형(57/61국문, 모교 석좌교수, 한국공연예술종합학교 교장)동문이

4월10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5세.

▲김홍인(65/72상학, 부명상사 대표)= 3월2일 부친상

▲송광수(95/97문화예술대학원, 새한스튜디오 사장)= 3월7일 본인 별세

▲김정화(58/64경제, (주)목현 회장)= 3월12일 본인 별세

▲윤홍섭(65/72상학, 전 (주)태영 본부장)= 3월14일 장인상

▲구자선(79/81경원, (주)자연과 사람 회장)= 3월22일 부인상

▲김봉주(77/78행원, (주)신한총괄 대표)= 3월25일 모친상

▲김영일(58/63정치, (주)메트로여행 고문)= 3월27일 본인 별세

▲사기순(84/88국문, 불광출판사 편집부장)= 3월28일 부친상

▲송재복(65/69경영, 대한컴퓨터기술(주) 회장)= 3월29일 모친상

▲김태원(71/75연영, 국회의원)=4월 26일 모친 별세

총동창회 홈페이지
www.dongguk.or.kr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금액 · 성명 가나다순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졸업년도 · 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만원)

각종회비 납부안내

- 외환은행 150-22-01536-0
- 예 금 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11년 2월 1일 ~ 2011년 4월 27일 접수분〉



김동정 (53/57법학)
고 문 100만원



김재기 (56/60경제)
고 문 100만원



박종운 (56/59경제)
고 문 100만원



전순표 (53/57농학)
고 문 100만원



서재열 (67/71화학)
부회장 100만원



구자선 (79/81경영)
부회장 100만원



구태태 (63/67경제)
부회장 100만원



권석충 (63/70정치)
부회장 100만원



김영환 (63/67정치)
부회장 100만원



김오현 (76/80체육)
부회장 100만원



김진문 (64/71경영)
부회장 100만원



노준식 (58/62정치)
부회장 100만원



박용재 (66/70법학)
부회장 100만원



범타스님 (67/74인철)
부회장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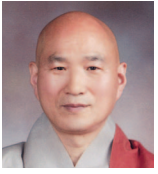
서정호 (71/76경영)
부회장 100만원



선혜자님 (96/98불원)
부회장 100만원



선용스님 (73/77승가)
부회장 100만원



성용스님 (91/93불원)
부회장 100만원



손학중 (65/69농경)
부회장 100만원



수인스님 (98/00선학)
부회장 100만원



심산스님 (82/86선학)
부회장 100만원



심호명 (98/00국원)
부회장 100만원



염달스님 (74/78승가)
부회장 100만원



오정석 (72/79농학)
부회장 100만원



유정환 (03/07경영)
부회장 100만원



이상현 (54/58경제)
부회장 100만원



이승성 (76/77체육)
부회장 100만원



이재형 (64/68불교)
부회장 100만원



이화일 (61/65상학)
부회장 100만원



자광스님 (64/68인철)
부회장 100만원



정산스님 (88/92선학)
부회장 100만원



정창구 (73/77무역)
부회장 100만원



조은구 (64/68경제)
부회장 100만원



진재경 (73/77영문)
부회장 100만원



차민수 (69/73경제)
부회장 100만원



채규민 (58/75정치)
부회장 100만원



한우삼 (63/69농학)
부회장 100만원



허수창 (08/08불원)
부회장 100만원



심현식 (59/63상학)
감 사 100만원

- | | | |
|--------------------|-------------------|------------------|
| ▲김민규(02/08생명·화학) 2 | ▲김용근(76/80공업경영) 2 | ▲김춘근(95/ 불교) 2 |
| ▲김방근(68/75경영) 2 | ▲김용림(99/01연영) 2 | ▲김충열(82/89경제) 2 |
| ▲김방진(57/59정치) 2 | ▲김용선(89/96회계) 2 | ▲김태근(94/ 불교) 2 |
| ▲김백한(59/64법학) 2 | ▲김용성(93/99교육) 2 | ▲김태우(59/64경제) 2 |
| ▲김범동(92/99무역) 2 | ▲김용요(76/83입학) 2 | ▲김택수(87/94경제) 2 |
| ▲김범준(03/07경영) 2 | ▲김용태(98/ 불교) 2 | ▲김택우(79/83경제) 2 |
| ▲김병상(58/60경제) 2 | ▲김용환(82/94전자) 2 | ▲김평일(88/95경행) 2 |
| ▲김병택(71/77국문) 2 | ▲김우경(84/88가교) 2 | ▲김한기(03/05행원) 2 |
| ▲김병훈(99/01경영) 2 | ▲김원경(97/ 불교) 2 | ▲김한성(/ 91한외) 2 |
| ▲김보하(04/07경영) 2 | ▲김원식(74/83경영) 2 | ▲김해동(91/93정원) 2 |
| ▲김보현(69/73정치) 2 | ▲김원철(68/75영문) 2 | ▲김현철(85/89법학) 2 |
| ▲김보현(74/78불교) 2 | ▲김유조(66/70법학) 2 | ▲김형동 2 |
| ▲김봉식(62/65불교) 2 | ▲김윤규(66/73식공) 2 | ▲김형수(02/04신방) 2 |
| ▲김봉주(83/90입학) 2 | ▲김윤석(85/89체육) 2 | ▲김형식(00/ 경영) 2 |
| ▲김부남(03/07상공) 2 | ▲김윤선(81/88수교) 2 | ▲김형준(89/97정기) 2 |
| ▲김부동(/90철학교육) 2 | ▲김윤중(89/94경제) 2 | ▲김호동(86/93회계) 2 |
| ▲김상규(98/98국원) 2 | ▲김은숙(76/80승가) 2 | ▲김호동(61/65법학) 2 |
| ▲김상근(95/97불원) 2 | ▲김은철(74/78공업경영) 2 | ▲김호성(95/02경영) 2 |
| ▲김상기(94/ 불원) 2 | ▲김은희(90/94통계) 2 | ▲김홍기(72/79무역) 2 |
| ▲김상배(68/72공업관리) 2 | ▲김은희(/ 06입학) 2 | ▲김홍철(58/63경영) 2 |
| ▲김생수(75/82경행) 2 | ▲김응호(58/64불교) 2 | ▲김홍철(60/65경제) 2 |
| ▲김석렬(90/92정원) 2 | ▲김이현(/ 67상학) 2 | ▲김화연(74/78무역) 2 |
| ▲김선경(68/75입학) 2 | ▲김익세(87/94상공) 2 | ▲김화동(00/04경영) 2 |
| ▲김선우 2 | ▲김인태(57/61영문) 2 | ▲김희영(70/77수학) 2 |
| ▲김선홍(61/65법학) 2 | ▲김 작(01/04경영) 2 | ▲김희철(58/63입학) 2 |
| ▲김선희(98/00불원) 2 | ▲김재용(65/69법학) 2 | ▲나인표(56/59경제) 2 |
| ▲김성광(65/67상학) 2 | ▲김재우(83/90농학) 2 | ▲나여숙(00/ 불교) 2 |
| ▲김성규 2 | ▲김재호(86/90무역) 2 | ▲나전근(80/84행정) 2 |
| ▲김성근(77/83행정) 2 | ▲김정갑(97/00행원) 2 | ▲남경오(94/99법학) 2 |
| ▲김성룡(73/77경행) 2 | ▲김정용 2 | ▲남계동(64/71입학) 2 |
| ▲김성열(92/99경영) 2 | ▲김정재(56/59법학) 2 | ▲남기석(55/61법학) 2 |
| ▲김성엽(03/05법학) 2 | ▲김정태(02/06경영) 2 | ▲남상근(71/78농경) 2 |
| ▲김성은(63/67행정) 2 | ▲김종기(07/08불문원) 2 | ▲남성원(62/66경제) 2 |
| ▲김성태(81/85전자) 2 | ▲김종택(66/70경영) 2 | ▲남시혁(56/58정치) 2 |
| ▲김성환(65/73화학) 2 | ▲김종민(69/76공업경영) 2 | ▲남용현(/89물리) 2 |
| ▲김세운(57/62경제) 2 | ▲김종배 2 | ▲남인호(/ 91경제) 2 |
| ▲김소연(99/00연영) 2 | ▲김종삼(61/68식공) 2 | ▲남지현(88/93연영) 2 |
| ▲김수식 2 | ▲김중서(03/06건축) 2 | ▲남택운(72/82회계) 2 |
| ▲김수완(69/76식공) 2 | ▲김종욱(79/85입학) 2 | ▲노수길(65/69경영) 2 |
| ▲김 순(87/93의학) 2 | ▲김종원(62/64국문) 2 | ▲노재환(71/75식공) 2 |
| ▲김순제(/ 56경제) 2 | ▲김종위(89/93경제) 2 | ▲대희스님(99/01불교) 2 |
| ▲김슬기(01/05경제) 2 | ▲김종형(98/ 불원) 2 | ▲도선스님(95/불원) 2 |
| ▲김승기(00/01의학) 2 | ▲김종환(61/65불교) 2 | ▲도정인(78/82수학) 2 |
| ▲김승태(72/79정치) 2 | ▲김종훈(57/63법학) 2 | ▲동예모 2 |
| ▲김시호(83/89농경) 2 | ▲김주갑(60/64법학) 2 | ▲류근선(78/85회계) 2 |
| ▲김익수(83/88행정) 2 | ▲김주연(63/70경영) 2 | ▲류미아(05/08행원) 2 |
| ▲김영구(78/85정치) 2 | ▲김준근(89/96화학) 2 | ▲류운선(83/89건축) 2 |
| ▲김영대(98/08기계) 2 | ▲김준수(99/02언원) 2 | ▲류조훈(91/98정치) 2 |
| ▲김영대 2 | ▲김준식(95/ 불원) 2 | ▲문대성(56/59정치) 2 |
| ▲김영돈(04/07불원) 2 | ▲김준환(97/01회계) 2 | ▲문병환(56/58법학) 2 |
| ▲김영배(85/89경제) 2 | ▲김준행(78/83화학) 2 | ▲문봉구(57/61경제) 2 |
| ▲김영봉(53/57농학) 2 | ▲김지영(01/04역사) 2 | ▲문송국(81/85회계) 2 |
| ▲김영수(82/89행정) 2 | ▲김진근(78/81토목) 2 | ▲문희경(02/07역사) 2 |
| ▲김영재(61/65법학) 2 | ▲김진삼(/ 92경제) 2 | ▲문희복(63/70식공) 2 |
| ▲김영진(83/87회계) 2 | ▲김진선(80/84전기) 2 | ▲미국 아리조나 동문회 11 |
| ▲김영진(78/82도시행정) 2 | ▲김진수(82/89체육) 2 | ▲민경선(77/81농경) 2 |
| ▲김영호(99/01경영) 2 | ▲김진영(79/81전자) 2 | ▲민병욱(71/78건축) 2 |
| ▲김영환(67/71위생) 2 | ▲김진원(61/65경영) 2 | ▲민병진(58/62정치) 2 |
| ▲김영환(58/62경제) 2 | ▲김찬익(04/ 경영) 2 | ▲민병천(82/86상공) 2 |
| ▲김우중(51/55경제) 2 | ▲김창수(59/62경제) 2 | ▲민수영(59/65정치) 2 |
| ▲김완식(81/85농학) 2 | ▲김정만(/ 97문원) 2 | ▲민우성(57/ 경제) 2 |

고문 분담금

- ▲신국주(46/50사학) 30
- ▲윤일규(67/69행원) 30

지도위원 회비

- ▲권기종(60/64불교) 30
- ▲김갑주(65/69일원) 30
- ▲김시배(54/58경제) 30
- ▲김용도(57/59경제) 30
- ▲김행남(61/65정치) 30
- ▲마경자(49/53국문) 30
- ▲민태진(56/60화학) 30
- ▲박낙원(57/61정치) 30
- ▲박은규(57/61정치) 30
- ▲심춘섭(57/61정치) 30
- ▲윤정광(59/63영문) 30
- ▲이광세(86/88경원) 30
- ▲이웅성(59/63법학) 30
- ▲최규철(64/66정치) 30

부회장 회비

- ▲김복규(61/ 행정) 3
- ▲김수봉(78/82전자) 30
- ▲서문양(95/97경영) 50
- ▲정동진(65/69국문) 30
- ▲무기명 1명 50

상임이사 회비

- ▲강상근(83/87법학) 20
- ▲고천석(76/83정치) 20
- ▲김래동(80/81행원) 20
- ▲김봉춘(61/65정치) 20
- ▲김사홍(79/80행원) 20
- ▲김상래(78/83경영) 20
- ▲김성강(60/04법학) 20
- ▲김성보(58/61행원) 20
- ▲김용환(71/75법학) 20
- ▲김창환(94/99경영) 20
- ▲김종호(80/84국교) 22
- ▲김흥우(60/64연영) 20
- ▲김희수(00/01사원) 20
- ▲류복수(95/96사원) 20
- ▲맹용재(86/88행원) 20
- ▲문준수(69/74인철) 20
- ▲박상관(79/86행정) 20
- ▲박종세(92/94경영) 20

- ▲방조원(77/78행원) 20
- ▲범운스님(93/95불원) 20
- ▲변종국(65/67경제) 20
- ▲손문영(69/73수자원) 20
- ▲양성호(72/79경행) 20
- ▲신명식(95/97정원) 20
- ▲심재익(59/64농학) 20
- ▲안성찬(96/00행정) 20
- ▲안종진(51/59영문) 20
- ▲양성호(72/79경행) 20
- ▲오만식(90/92불원) 20
- ▲오학선(94/96행원) 20
- ▲위종성(64/71농경) 20
- ▲유대진(59/63상학) 20
- ▲이덕원(68/72사학) 20
- ▲이성수(68/72경행) 20
- ▲이순우(60/64경제) 20
- ▲이재용(64/71상학) 20
- ▲이점구(96/99사원) 20
- ▲이준필(99/01불교) 20
- ▲임규영(68/75경제) 20
- ▲임승택(74/78경행) 20
- ▲장세균(67/72철학) 20
- ▲정대진(59/63법학) 20
- ▲정동기(57/59정치) 20
- ▲정배운(79/86경제) 20
- ▲정사균(95/96사원) 20
- ▲정우식(88/93철학) 20
- ▲조국형(58/62정치) 20
- ▲조시영(86/90회계) 20
- ▲최동선(59/63경제) 20
- ▲최병식(59/64불교) 20
- ▲최영철(95/97불원) 20
- ▲태진스님(98/02불원) 20

이사 회비

- ▲구학도(90/92행원) 10
- ▲권종원(64/68상학) 10
- ▲김경선(81/88국교) 10
- ▲김만선(68/72법학) 10
- ▲김병희(85/89미술) 10
- ▲김상종(62/66농경) 10
- ▲김성중(77/84농생) 10
- ▲김영민(64/77법학) 10
- ▲김완규(63/70농학) 10
- ▲김은구(75/82입학) 10
- ▲김재홍(56/60경제) 10
- ▲김정근(95/02법학) 10
- ▲김종범(81/88전자) 10

- ▲김진용(58/65경제) 10
- ▲김태웅(91/93행원) 10
- ▲김흥찬(57/63법학) 10
- ▲나영수(63/65국문) 10
- ▲민경복(60/64법학) 10
- ▲박대은(97/98사원) 10
- ▲박명국(76/83체육) 10
- ▲박봉선(60/66경제) 10
- ▲박수영(89/91행원) 10
- ▲박홍서(68/72통계) 10
- ▲배보영(97/00불교) 10
- ▲배충남(62/66상학) 10
- ▲백재승(73/77통계) 10
- ▲사동필(71/78경제) 10
- ▲설재원(92/97경행) 10
- ▲손일환(93/94사원) 10
- ▲송경목(84/88연영) 10
- ▲송운스님(72/76승가) 10
- ▲신창식(80/85경제) 10
- ▲신화성(84/92화학) 10
- ▲삼현설(63/65경제) 10
- ▲양재인(64/71정치) 10
- ▲오선호(84/88영문) 10
- ▲윤천수(71/75정치) 10
- ▲이강식(01/03불문원) 10
- ▲이경범(65/69경행) 10
- ▲이권학(86/92인철) 10
- ▲이상록(74/81미술) 10
- ▲이서행(58/62정치) 10
- ▲이성복(71/75전자) 10
- ▲이승복(85/92경행) 10
- ▲이영길(64/73농생) 12
- ▲이일용(84/88무역) 10
- ▲이철중(77/81토목) 10
- ▲임진섭(80/84정치) 10
- ▲장준영(66/70경행) 10
- ▲전영선(69/76식공) 10
- ▲정경훈(82/87경영) 10
- ▲정도스님(95/99선학) 10
- ▲정세영(54/58법학) 10
- ▲정호경(95/97불원) 10
- ▲정훈모(78/86정치) 10
- ▲조규진(93/95경원) 10
- ▲조남현(73/80무역) 10
- ▲조중진(54/58정치) 10
- ▲조창원(55/57경제) 10
- ▲조홍기(59/63영문) 10
- ▲진성스님(04/07사원) 10
- ▲최주익(99/02경제,경영) 10
- ▲최창영(61/67법학) 10

일반 회비

- ▲강경호(03/06국문) 2
- ▲강무등(64/71농경) 2
- ▲강문서(60/65농학) 2
- ▲강석규(85/89전자) 2
- ▲강석우(77/81연영) 2
- ▲강선진(00/ 경영) 2
- ▲강성길(87/94무역) 2
- ▲강성범(/ 03불교) 2
- ▲강수창(63/66상학) 2
- ▲강애영(83/87철학) 2
- ▲강연희(04/08국제통상) 2
- ▲강영길(95/97경원) 2
- ▲강용기(82/86전자) 2
- ▲강갑선(83/87선학) 2
- ▲강익수(77/85건축) 2
- ▲강정숙(70/74국교

▲민재기(95/99건축)	2	▲성하룡(56/60정치)	2	▲원종대(61/65정의)	2	▲이성환	2	▲임지수(82/86경제)	2	▲정정문(01/08전자)	2	▲채기명(73/77행정)	2	▲하찬호(79/85회계)	2
▲박고홍(64/68불교)	2	▲소유진(00/04연영)	2	▲원종석(69/76경제)	2	▲이수명(59/63경영)	2	▲임진수(60/66행정)	2	▲정정연(85/90경영)	2	▲채무홍(/62농학)	2	▲하태준(79/84토목)	2
▲박광래(58/61경제)	2	▲손상필(62/66경제)	2	▲원철스님(01/03불교)	2	▲이순지(04/08경영)	2	▲임창빈(97/98경영)	2	▲정재용(88/96법학)	2	▲채수일(/61정치)	2	▲하형성(80/87회계)	2
▲박광옥(60/64경제)	2	▲손석창(82/86법학)	2	▲원희준(67/75경제)	2	▲이승길(60/65법학)	2	▲장광익(78/83화학)	2	▲정종철(76/83전자)	2	▲천수호(83/87인철)	2	▲하형준(90/96무역)	2
▲박광태(61/63국문)	2	▲손성훈(97/00교육)	2	▲유계화(/93불원)	2	▲이승박(79/85한의)	2	▲장도원(01/05통계)	2	▲정진하(82/89전자)	2	▲철은스님(/88교원)	2	▲하혜순(92/ 불원)	2
▲박광호(75/79전기)	2	▲손세명(68/72법학)	2	▲유광진(73/81전기)	2	▲이승석(86/92의학)	2	▲장동현(81/87무역)	2	▲정찬교(72/79무역)	2	▲초연스님(95/불교)	2	▲한갑수(63/69법학)	2
▲박광호(74/78농생)	2	▲손양선(98/00경영)	2	▲유광희(64/68응생)	2	▲이승우(/ 불원)	2	▲장두혁(01/05체교)	2	▲정창식(/97체교)	2	▲최경근(57/61생물)	2	▲한경수(69/73경제)	2
▲박규천(74/78승가)	2	▲손용선(77/81경제)	2	▲유득수(91/ 불원)	2	▲이승진(91/95정의)	2	▲장명근(58/64법학)	2	▲정창숙(/96국교)	2	▲최경범(59/63법학)	2	▲한경원(49/52경제)	2
▲박근영(73/78식공)	2	▲손중호(82/89무역)	2	▲유만선(/88경제)	2	▲이실규(72/77행정)	2	▲장명수(01/03행정)	2	▲정춘덕(55/59법학)	2	▲최경식(51/56정치)	2	▲한규석(98/00지교)	2
▲박기석(84/88경영)	2	▲송경규(84/89경제)	2	▲유상갑(64/66법학)	2	▲이영길(99/01행정)	2	▲장보선(8/89철학교육)	2	▲정태근(70/78무역)	2	▲최광서(76/83무역)	2	▲한도수(58/61경제)	2
▲박대신(92/99영문)	2	▲송기백(80/87경영)	2	▲유상현(64/68행정)	2	▲이영석(86/94산공)	2	▲장보옥(06/08불문원)	2	▲정태수(69/71법학)	2	▲최광수(82/89화학)	2	▲한명수(87/93철학)	2
▲박덕수(78/82국교)	2	▲송기봉(74/78국교)	2	▲유승환(81/86지교)	2	▲이영석(72/79농경)	2	▲장봉기(8/89미술교육)	2	▲정태순(98/00불원)	2	▲최근수(93/96산원)	2	▲한상민(06/08경영)	2
▲박덕준(88/92경영)	2	▲송기운(65/71경제)	2	▲유연상(85/89경행)	2	▲이영연(61/63경영)	2	▲장상도(95/99경영)	2	▲정학주(64/72법학)	2	▲최기호(72/76행정)	2	▲한성권(80/84경영)	2
▲박동건(83/90경영)	2	▲송상호(81/85전자)	2	▲유영현(/76국교)	2	▲이영우(59/67정의)	2	▲장성근(58/65법학)	2	▲정해옥(02/05사원)	2	▲최낙석(59/65경제)	2	▲한승우(84/91건축)	2
▲박동규(94/96사회)	2	▲송성환(66/68경제)	2	▲유영식(55/61법학)	2	▲이영진	2	▲장소천(86/90교육)	2	▲정 현(91/97화학)	2	▲최명재(/94경영)	2	▲한영근(87/91경영)	2
▲박동민(70/74식공)	2	▲송승훈(01/08전기)	2	▲유영호(57/62경제)	2	▲이영희(/04불원)	2	▲장승수(87/91정보관리)	2	▲정현정(/95행정)	2	▲최문경(68/72경영)	2	▲한예진(57/64경제)	2
▲박동원(53/57법학)	2	▲송용순(83/87철학)	2	▲유윤철(/72경영)	2	▲이완규(05/07문원)	2	▲장영숙(76/80공업경영)	2	▲정형복(55/59법학)	2	▲최성섭(65/72식공)	2	▲한우진(96/ 불원)	2
▲박동해(58/65법학)	2	▲송용운(64/71행정)	2	▲유은규(02/06경영)	2	▲이용구(71/75농학)	2	▲장용화(82/87식공)	2	▲정호영(78/85건축)	2	▲최성훈(03/07전자)	2	▲한운섭(/72경영)	2
▲박동현(61/64영문)	2	▲송윤균(90/94무역)	2	▲유일상(72/79전자)	2	▲이용국(74/78경영)	2	▲장진찬(80/87회계)	2	▲정흥진(95/ 불원)	2	▲최순희(81/85지교)	2	▲한인만(64/72국문)	2
▲박동훈(03/ 경원)	2	▲송윤석(84/91경제)	2	▲유재능(79/83무역)	2	▲이용석(73/80정의)	2	▲장호석(86/92의학)	2	▲정희장(70/77무역)	2	▲최승호(84/88회계)	2	▲한철규(77/83식공)	2
▲박득근(73/80경행)	2	▲송인만(81/85법학)	2	▲유재홍(95/97불교)	2	▲이용섭(02/04불교)	2	▲전무준(63/67상학)	2	▲제용호(04/08세무회계)	2	▲최실경(65/69농학)	2	▲한철의(80/88전자)	2
▲박문교(70/78무역)	2	▲송재관(64/69행정)	2	▲유정환(03/07경영)	2	▲이용성(73/79법학)	2	▲전문순(81/88회계)	2	▲조규영(64/08경제)	2	▲최양미(91/ 불교)	2	▲한충희(92/96전자)	2
▲박부남(98/ 불원)	2	▲송재신(58/62법학)	2	▲유지상(85/91건축)	2	▲이우승(04/07교원)	2	▲전사운(58/64정치)	2	▲조남기(83/87경영)	2	▲최영숙(96/98영문)	2	▲허관식(78/85행정)	2
▲박상갑(95/ 불교)	2	▲송재훈(98/06경제)	2	▲유지선(72/76행정)	2	▲이위식(92/ 불원)	2	▲전수식(56/63법학)	2	▲조만수(70/77경영)	2	▲최예남(00/05경영)	2	▲허광일(96/01교원)	2
▲박상규(70/78연영)	2	▲송재면(67/ 경영)	2	▲유택상(69/73토목)	2	▲이윤주(77/80정의)	2	▲전수오(02/06경영)	2	▲조명준(77/81전자)	2	▲최예영(53/57경제)	2	▲허금한(70/77무역)	2
▲박상욱(89/96법학)	2	▲송호택(82/90경영)	2	▲유한중(99/01경영)	2	▲이은섭(58/64경제)	2	▲전위미(82/86회계)	2	▲조문식(02/08전자)	2	▲최완철(59/61경제)	2	▲허병두(57/60경제)	2
▲박상일(62/66농학)	2	▲신희관(65/72경영)	2	▲유호일(53/58농학)	2	▲이은진(59/61법학)	2	▲전윤중(79/85전기)	2	▲조선주(/83행정)	2	▲최용관(60/64상학)	2	▲허용범(86/93회계)	2
▲박상철(86/96경제)	2	▲신태석(06/08불원)	2	▲윤근향(/93불원)	2	▲이은집(/82국교)	2	▲전은영(70/74화학)	2	▲조성각(59/65영문)	2	▲최용근(62/63법학)	2	▲허장민(64/68정의)	2
▲박성봉(94/ 불교)	2	▲신통기(03/08행정)	2	▲윤영길(59/65경제)	2	▲이인선(72/76화학)	2	▲전익흥(/89법학)	2	▲조숙영(85/89역사)	2	▲최우봉(79/86전자)	2	▲허 천(01/07경제)	2
▲박성준(76/80행정)	2	▲신통화(61/65식공)	2	▲윤원균(87/94회계)	2	▲이인선(63/66불교)	2	▲전전홍(61/65경영)	2	▲조연희	2	▲최우수(77/81경제)	2	▲허태원(57/ 농학)	2
▲박세원(03/07체교)	2	▲신희상(94/98회계)	2	▲윤인형(87/92무역)	2	▲이인형(62/82화학)	2	▲전형배(79/ 전자)	2	▲조원왕(86/94수교)	2	▲최원복(64/72상학)	2	▲현석관(94/95불원)	2
▲박수진(89/93농생)	2	▲신희선(61/65정의)	2	▲윤장근(65/71법학)	2	▲이장걸(56/62사학)	2	▲전형식(54/61경제)	2	▲조원희(85/93경영)	2	▲최은영(98/02국제통상)	2	▲현창희(77/83회계)	2
▲박수호(99/01행정)	2	▲신희희(60/64사학)	2	▲윤종기(79/83경행)	2	▲이재근(/97수교)	2	▲전희근(59/63경영)	2	▲조 응(92/97사회)	2	▲최익달(52/56법학)	2	▲혜밀스님(95/ 불원)	2
▲박양수(71/77입학)	2	▲신희갑(64/72통계)	2	▲윤종욱(/82행정)	2	▲이재동(/ 불원)	2	▲정갑동(69/73영문)	2	▲조은효(78/82가교)	2	▲최인규(79/86통계)	2	▲호준환(56/60정치)	2
▲박영걸(98/00불원)	2	▲신희영(95/ 불교)	2	▲윤준국(/05불원)	2	▲이재오(72/76과교)	2	▲정갑영(77/81전기)	2	▲조의규(71/75수학)	2	▲최인식(56/62법학)	2	▲홍광원(78/85식공)	2
▲박영록(68/73경영)	2	▲신희관(03/05불문원)	2	▲윤지원(94/98컴공)	2	▲이재일(80/87회계)	2	▲정강대(81/88법학)	4	▲조재경(/78법학)	2	▲최인철(84/90건축)	2	▲홍광표(/99사원)	2
▲박영무(60/64법학)	2	▲신희우(56/59경제)	2	▲윤지원(85/92토목)	2	▲이정근(54/58법학)	2	▲정경배(/89경영)	2	▲조정근(83/90사학)	2	▲최정우(00/07생명·화학)	2	▲홍기익(66/70경제)	2
▲박영석(83/91체교)	2	▲신희현(80/86한의)	2	▲윤천수(91/ 불원)	2	▲이정구(56/60사학)	2	▲정경환(86/93무역)	2	▲조정은(03/07역사)	2	▲최정웅(07/08불문원)	2	▲홍기표(58/64정의)	2
▲박영재(/85미술교육)	2	▲신희철(67/71경영)	2	▲윤천식(64/69경제)	2	▲이정모(/87경영)	2	▲정광용(78/81농학)	2	▲조중환(65/74경제)	2	▲최정원	2	▲홍성규(05/08불교)	2
▲박영희(/91경영)	2	▲신희철(77/80국문)	2	▲윤학섭(84/91경영)	2	▲이정분(00/ 불원)	2	▲정구인(62/64국문)	2	▲조준수(87/89회계)	2	▲최정일(95/99관광경영)	2	▲홍순직(66/71경영)	2
▲박용규(02/08경행)	2	▲신희기(70/74행정)	2	▲윤호영(49/53정치)	2	▲이정식(80/87경영)	2	▲정구철(55/59정치)	2	▲조중환(57/63법학)	2	▲최정일(98/02국토목)	2	▲홍성철(66/73경제)	2
▲박원일(78/82건축)	2	▲심길문(00/05선학)	2	▲윤 환(66/70사학)	2	▲이정현	2	▲정기식(56/59사학)	2	▲조지환(55/58경제)	2	▲최종남(61/65법학)	2	▲홍의재(03/05한의)	2
▲박은주(00/03회계)	2	▲심덕원(63/67법학)	2	▲은성수(05/07불원)	2	▲이정훈(60/64법학)	2	▲정기태(/65상학)	2	▲조찬용(/84국문)	2	▲최종철(60/63법학)	2	▲홍정림(89/92산공)	2
▲박익주(59/61정치)	2	▲심동기(74/81토목)	2	▲이갑목(98/06기계)	2	▲이정훈(97/01건축)	2	▲정동교(59/65입학)	2	▲조동남(/97문원)	2	▲최준원(80/83무역)	2	▲홍정숙(02/05불문원)	2
▲박인섭(80/89교육)	2	▲심명호(67/76농생)	2	▲이건선(65/72입학)	2	▲이종근(95/02경제)	2	▲정동기(64/72농림경제)	2	▲조하성(77/84경영)	2	▲최중열(56/62정치)	2	▲홍종국(70/79건축)	2
▲박인수(91/97화학)	2	▲심상구(/98경영)	2	▲이건원(60/65경제)	2	▲이종남(05/09국제통상)	2	▲정동식(81/85체교)	2	▲조한석(06/08경행)	2	▲최지선(69/76경제)	2	▲홍종길(82/86경영)	2
▲박인영(99/01언원)	2	▲심상규(67/70경영)	2	▲이경로(/60법학)	2	▲이종서(71/75법학)	2	▲정동환(67/71식공)	2	▲조한운(61/65상학)	2	▲최 진(72/81국교)	2	▲홍경원(69/73농경)	2
▲박 일(56/59정치)	2	▲심원신(75/79영문)	2	▲이경수(88/92토목)	2	▲이종승(84/91산공)	2	▲정병문(82/89회계)	2	▲조현수(60/64농경)	2	▲최창원(65/68식공)	2	▲황금성(69/76전자)	2
▲박일환(78/82행정)	2	▲안강태(58/65경제)	2	▲이경숙(/93무역)	2	▲이종식(87/94전기)	2	▲정병철(/79건축)	2	▲조현철(77/84화공)	2	▲최창호(74/81전자)	2	▲황병향(/04불교)	2
▲박재근(02/08교원)	2	▲안군선(85/89회계)	2	▲이경우(48/52국문)	2	▲이종연(85/92농경)	2	▲정성용(69/76정의)	2	▲조 활(68/72수자원)	2	▲최천규(80/87화학)	2	▲황선욱(98/06회계)	2
▲박재원(93/95불원)	2	▲안병조(63/70경제)	2	▲이경우(/62경제)	2	▲이종남(05/07불문원)	2	▲정상학(94/96불원)	2	▲조희진(79/86국사)	2	▲최 철(69/76수학)	2	▲황성연(66/73무역)	2
▲박재원(57/68경제)	2	▲안수남(03/06행원)	2	▲이경재(71/75전자)	2	▲이종찬(64/70정의)	2	▲정석성(72/79사교)	2	▲조희재(63/67식공)	2	▲최해용(61/63법학)	2	▲황윤걸(60/63입학)	2
▲박재필(71/78경제)	2	▲안수병(56/60법학)	2	▲이계연(83/87가교)	2	▲이종현(83/90농학)	2	▲정석원(76/83경제)	2	▲주노식(74/81국사)	2	▲최해숙(83/87선학)	2	▲황정준(99/08경영)	2
▲박재형(81/88국사)	2	▲안억진(67/71경행)	2	▲이 관(90/96의학)	2	▲이종현(46/50국문)	4	▲정선영(74/79무역)	2	▲주운숙(01/02불문원)	2	▲최홍길(58/62경제)	2	▲황창순(74/78화공)	2
▲박재규(72/76경행)	2	▲안영근(57/61불교)	2	▲이규형	2	▲이종혁(69/73경제)	2	▲정세용(00/08생명·화학)	2	▲주용식(99/02공안행정)	2	▲최희주(04/06국제통상)	2	▲황창근(/62경제)	2
▲박정인(69/73경제)	2	▲안형명(60/64입학)	2	▲이 근(86/90회계)	2	▲이종환(/80경영)	2	▲정수용(64/71경제)	2	▲주정호(92/96회계)	2	▲최희준(67/75경제)	2	▲무기명 2명	4
▲박정훈(83/90경영)	2	▲안화백(71/78토목)	2	▲이근수(98/00북한)	2	▲이주환(80/84전자)	2	▲정승각(47/51정치)	2	▲주희동(59/63상학)	2	▲태중명(00/02불교)	2		
▲박종관(00/07경제)	2	▲앙구석(61/65농학)	2	▲이기호(78/85경영)	2	▲이죽련(99/02국문)	2	▲정안스님(93/불원)	2	▲지규원(71/78정의)	2	▲포대규(86/93정의)	2		
▲박종석	2	▲앙기덕(84/88회계)	2	▲이대일(01/07경행)	2	▲이 준(56/60생물)	2	▲정양권(96/ 불원)	2	▲지순석(78/85전기)	2	▲하건진(57/63영문)	2		
▲박종철(98/00문원)	2	▲앙문중(57/63법학)	2	▲이동기(99/05전자상거래)	2	▲이준재(71/78화학)	2	▲정영진(84/88전자)	2	▲지정구(56/58법학)	2	▲하대원(00/04건축)	2		
▲박중호(/99경영)	2	▲앙성희(86/91농생)	2	▲이동명(82/86불교)	2	▲이준호(/95법학)	2	▲정외선(65/67응생)	2	▲진성기(99/01행정)	2	▲하문수(55/63경제)	2		
▲박준수(/03불교)	2	▲앙성룡(03/07국제통상)	2	▲이동석(84/89산공)	2	▲이종량(/58정치)	2	▲정외택(86/93경제)	2	▲진승현(04/07영원)	2	▲하미정(85/89국교)	2		
▲박준영(85/89경제)	2	▲앙용호(82/88문원)	2	▲이동하(55/58입학)	2	▲이종철(64/68농림경제)	2	▲정용철(72/76농경)	2	▲진재택(67/71위생)	2	▲하 섭(/97미술교육)	2		
▲박중현(96/03건축)	2	▲앙정기(65/73통계)	2	▲이동형(76/80공업경영)	2	▲이진우	2	▲정운영(81/88전자)	2	▲진중열(77/81조경)	2	▲하정민(99/07정의)	2		
▲박지영(96/03행정)	2	▲앙주관(59/61법학)	2	▲이동훈(72/78경제)	2	▲이진철(67/70경영)	2	▲정운식(69/73법학)	2	▲진호상(/87경영)	2	▲하정열(01/03행원)	2		
▲박지원(69/73경제)	2	▲앙종모(64/66국문)	2	▲이두원(85/92통계)	2	▲이진혁(75/79화학)	2	▲정일준(/79경제)	2	▲진홍식(59/67법학)	2	▲하종대(55/59정치)	2		
▲박창현(00/04전자)	2	▲앙창덕(67/71경영)	2	▲이득현(72/79국교)	2	▲이진호(75/82체교)	2	▲정장식(58/62경제)	2	▲차대영(89/96경행)	2	▲하지훈(01/08정보관리)	2		
▲박진수(59/63국문)	2	▲앙희성(82/87경행)	2	▲이 란(95/ 불원)	2	▲이창수(80/84경영)	2								
▲박진형(03/07경영)	2	▲엄중호(56/60법학)	2	▲이백우(91/93불원)	2	▲이창원(76/82식공)	2								